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이원화된 업무 7월부터 區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기존 업체 직원 직접고용 안정적 청소서비스 제공

광주시 광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29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 월곡1·2동과 하남2지구 1만7천93세대 담당)으로 이원화돼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협동조합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주시의 종합감사결과에서 비롯됐다. 2015년 시설관리공단 출범 당시 광산구는 클린광산의 설립 취지를 존중해 공단과 통합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클린광산과의 계약연장에 대해 입찰공고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오는 6월 30일 클린광산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광산구는 클린광산 직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광산구는 지난 2월 클린광산·시설관리공단·광산구의회와 함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서는 클린광산 직원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논의를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개입찰 또는 시설관리공단 통합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 존중 및 배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TF팀은 공개입찰의 경우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고 그동안 클린광산 직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헌신해온 점을 감안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일원화와 직원 공단직접 고용을 최종 해법으로 제시했고 광산구는 이에 따라 최종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광산구는 조만간 이 같은 결정을 클린광산에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클린광산 직원 공단 직접고용, 관련 업무 이관 등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청소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더 안정적이고 나은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클린광산 측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결론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 기자



초등생들이 구상하고 그린 안전 통학로 광주시 광산구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8일 산월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 20명이 도안한 열로우가넷을 학교 주변 통학로에 그렸다. 행사에 참가한 산월초 5학년 조하은 학생은 "매일 걷는 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바꾸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광산구 제공

‘우산시영 버섯농장’ 확장

광산구는 29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도시공사가 최근 아파트 유휴 공간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시영2단지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에 조성한 '우산시영 버섯농장'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우산동은 지난해 12월 공사의 도움을 받아 비어있던 영구인대아파트 상가 지하에 주민 복지·노동·일자리 공간으로 47㎡에 '우산시영 버섯농장'을 만들었다. 주민이 참여해 버섯 기르기 교육과 재배가 이뤄지던 이곳은 입주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아파트 명소를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서 버섯 접종·배양·재배 모두를 진행하기 무리가 있었고 더 많은 주민이 이곳에서 배우며 일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다. 우산동은 이번 협약으로 어려움을 풀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기존 버섯재배사 옆 56㎡ 공간을 내줬다. 우산동은 이곳에 구 예산을 지원받아 배양·재배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광산=고훈석 기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8일 구청에서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구민 40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발굴한 실생활 불편·불안 요소 개선을 요구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의회 기획총무委, 정책세미나 개최

마을공동체·여성친화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시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임)가 최근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와 여성친화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주최했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등 6명, 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주경미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이혜경 까망이 협동조합 이사장, 박근영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센터 여성친화마을 전담 코디,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혜영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참석자 소개로 시작된 세미나는 백희정 대표의 '마을공동체와 성평등, 여성친화마을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과 참석자들의 정보공유 및 자유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백 대표는 "여성에게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돌봄, 역량강화, 생활형 일자리 발굴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여성친화마을이 성평등 정책을 안 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여성 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 타 사업 연계방안 등 마을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조영임 위원장은 "도시발전과 구정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해야 한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 기자

세계음식문화축제 성료

'제7회 광산구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최근 수완호수공원에서 10개국 22개 세계음식 체험, 아시아 전통의상 퍼레이드, 시민장기자랑 등을 내용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아시아 전통의상 퍼레이드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스코트인 수리·달이가 함께했고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과 함께 이들을 맞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처럼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 기자

區,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

무더위쉼터 확대·쿨링포그·그늘막 등 설치

광주시 광산구가 폭염피해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상 통계작성 이후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폭염경보 등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폭염대응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320개였던 무더위쉼터를 30개소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간 개방 무더위쉼터를 확보해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이 열대야로부터 피해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삼수차를 동원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수영장, 우산동 선수촌 등 시설 주변을 포함한 주요

도로에 물을 뿌려 도로 온도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광주송정역 광장에 설치했던 도심 열섬현상 저감 장치인 쿨링포그는 올해 첨단 쌍암공원도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횡단보도 그늘막도 9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도 햇빛을 반사해 옥상 열기 축적을 감소하는 쿨루프를 오래된 무더위쉼터에 도입하고 1천300㎡ 넓이의 보도 온도를 저감해 보행자의 체감 더위를 낮추는 쿨페이브먼트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산=고훈석 기자

‘아빠와 함께 꼬마 탁자 만들어요’

내달 22·29일 ‘프랜데이 목공스쿨’ 참가 가족 모집

광주시 광산구가 6월 22·29일 신창동 목공스쿨에서 열린 '프랜데이 목공스쿨'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이번 목공스쿨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작은 탁자를 만들며 가족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자리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등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

참가 대상은 광산구에 사는 가족이다. 목공스쿨은 하루 2회 오전·오후로 나눠 운영하고 1회에 12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가족은 6월 5일까지 '광산마을학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광산구는 목공·요리·가족공예 등 내용의 프랜데이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광산=고훈석 기자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